

劉純의 著書에 나타난 醫學思想에 關한 小考

鄭閔喆, 尹暢烈

大田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學教室

內容摘要

劉純著書中對其醫學思想的淺探

鄭閔喆 · 尹暢烈

大田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學教室

通過對明初著名醫家, 劉純(1358~1418)的生涯和醫學思想, 得出如下結論:

劉純, 字宗厚, 關中人, 博學群書尤精醫道, 其父叔淵得丹溪之業公繼之.

『醫經小學』是為初學者入門之著作, 他廣輯『內經』『難經』以及金元諸家醫學著作, 皆撮其要旨詳為編次間附按語, 以述己見, 內容以歌訣形式書寫, 以便記習.

『玉機微義』是續增徐彥純所撰『醫學折衷』而成, 對採摘先賢之醫論及方藥加以評判, 論其是非. 徐彥純和劉純的醫學思想, 大抵師法丹溪, 旁參劉河間, 張潔古, 李東垣等金元諸家. 他們不恪守一家之學, 對於其師, 也能不拘門戶之見.

『雜病治例』是劉純晚年之作, 是他一生的臨床經驗和心得的總結. 此書言簡意賅, 為一綱領性的雜病要訣, 使後學者一目了然, 直取精髓.

『傷寒治例』的書寫體例基本與『雜病治例』同. 大抵劉純注重法式理例, 臨證實用, 不斤斤於『傷寒論』條文之辨晰, 充分是臨床的價值.

關鍵詞: 劉純, 『醫經小學』, 『玉機微義』, 『雜病治例』, 『傷寒治例』

I. 緒論

劉純은 明初의 著名한 醫學家이다. 그의 아버지 劉叔淵(號 橘泉)이 朱丹溪의 門下에서 배워서 朱丹溪의 뛰어난 제자가 되었으며, 劉純도 또한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가르침을 계승하여 아버지를 따라 의학을 배워서 劉純의 學術思想은 基本的으로 朱丹溪를 계승하였으니, 朱丹溪先生의 再傳弟子라고 말할 수 있다.¹⁾

劉純의 現존하는 著書로는 『醫經小學』, 『玉機微義』, 『雜病治例』, 『傷寒治例』가 있는데, 그 저술은 『內經』과 『難經』의 經旨를 받들고, 主 단계등 金元사대가의 精化를 널리 받아들였으며, 자신의 臨床心得을 기술하였다.

『醫經小學』은 歌訣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초학을 가르치는 자료가 되며, 『玉機微義』는 임상에 임하여 이전의 여러 의가에 대한 바른 견해를 보여주고 있어서, 그의 저서는 후세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에 필자는 유순에 대한 연구의 일환으로 먼저 그의 생애와 現존하는 의서에 대한 연구를 하여 얻은 바가 있어 이에 보고하고자 한다.

II. 劉純의 生涯

劉純의 字는 宗厚이고, 明初의 著名한 醫學家이다. 그의 生卒年은 상세하지 않다. 다만 그 가장 이른 著作인 『醫經小學』에 근거하면 明洪武二十一年(1388)에 책이 완성되었으니, 곧 그 學業이 이미 成熟에 이르렀음을 설명하니, 故로 그 年齡은 三十歲 전후로 계산되므로, 위로 그 生年을 미루어보면, 元至正十八年(1358) 전후에 해당하고, 이 때는 바로 朱丹溪卒年 전후이다. 그 가장 늦은 著作인 『雜病治例』는 明永樂六年(1408)에 책이 완성되었으니, 劉純의 一生에 顛沛流離하고 窮困潦倒하여 享年 六十歲로 計算되는 것으로부터, 그 卒年은 대략 明永樂十六年(1418)이다. 正統四年(1439)에 그 後裔를 쫓아서 家中을 방문하여 『玉機微義』를 얻었을 때에 劉純은 이미 作故하였다.

劉純의 祖籍은 吳陵이니 곧 지금의 江蘇 泰縣 如阜一帶이다. 그 先世는 元나라 때에 名門望族이었다. 이것은 『雜病治例』中에 “吾宗은 累世에 替縷하여 名門右族이라.”라 자술한 것에 있고, 莫士安이 『玉機微義』序中에 “宗厚는 世爲吳陵望族이라.”고 하고, “其先世는 在勝國時에 居省憲하고 掌樞要하여 以名宦顯著者라.”고 하였는데, 劉純의 先祖는 當時에 확

1) 『東醫寶鑑』集例에 보면, 王節齋가 말하기를 “東垣 李杲는 北方醫者인데 羅謙甫가 그 법을 전함으로써 江浙지방에 알려졌고, 丹溪 朱震亨은 南醫인데 劉宗厚가 그를 배움으로써 陝西지방에서 이름났다.”고 하였다.

실히 一方에 이름을 날린 顯赫大家라는 것을 설명한다. 다만 한 두 世를 지나지 않아 문득 家道가 衰落하고 劉純에 이르러 “窮而在下하여 不能躬耕自食其力하니 故로 托跡於醫하여 自養自晦也라.”고 하였다.

劉純은 먼저 아버지를 따라서 醫를 배우고, 후에 또한 揚州 廣陵의 丘克容 馮庭幹 許宗魯의 여러 高尙 前輩를 스승삼아 醫業을 배웠는데, 이는 劉純으로 하여금 博采衆家하여 醫道가 더욱 精하게 되어서, 當時 및 그 後에도 매우 影響력 있는 名醫로 一位가 되었다.

劉純은 早年에 淮南에서 생활하고, 후에 또한 長安 涼州 張掖에 居住하였다. 蕭謙의 『雜病治例』序中에 말한 것을 따르면 “奉命給賞甘州官軍이라하니 甘州即漢張掖酒泉郡라 名醫 劉宗厚 …… 神方妙術 猶有存者라 乃延其後人 …… 慨然以太素脈訣 雜病治例見與라”고 하였는데, 劉純은 最後에 張掖에 거처를 정하였고, 그 後人들도 張掖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을 설명한다.

Ⅲ. 醫學著作의 版本

1. 『醫經小學』의 版本

- 1) 明正統四年 (1439)에 陳有戒의 陝西刊本 (簡稱陳本). 首에 正統四年의 楊士奇序가 있고, 洪武二十一年 (1388)에 劉純序 및 凡例가 있다. 半頁은 十一行이고, 行은 二十四五字이며, 大黑口, 雙魚尾, 四周雙邊으로 되어 있다. 版框高는 二十三點六厘米이고, 寬은 十四點九厘米로 모두 六卷인데, 지금까지 이미 알고 있는 가장 오래된 刻本이 된다.
- 2) 明景泰六年(1455)에 王仲宏의 刊本 (簡稱王本). 이 本은 中國內에 著錄이 보이지 않고, 현재 日本天保己亥 (1839)에 元晁抄本이 있다. 이 本은 首에 楊 劉二序 凡例 및 景泰六年 臨川 吳昌衍序가 있고, 書後에 元晁跋이 있다. 吳序에 근거하면 이 本이 陳本을 直接翻刻한 것임을 알 수 있는데, 오직 第五卷의 “方見『醫壘元戒』” 下에 一段의 脫文이 있다. 또한 元晁은 고친 글자가 많으므로 景泰本의 原貌를 反映하기에는 부족하다.
- 3) 明成化九年 (1473)에 熊氏 (宗立) 種德堂刊本 (簡稱熊本). 首에 楊 劉二序가 있고, 凡例는 빠져있고, 正文은 陳本과 더불어 異文이 極少한데, 오직 第五卷의 脫文이 王本과 같으니, 熊本은 王本을 根據하여 翻刻한 것임을 說明한다. 每半頁은 十一行이고, 行은 二十字이며, 小黑口, 雙魚尾, 四周雙邊으로 되어 있고, 版心에 “醫學”, 卷次, 頁碼이 있다.
- 4) 明萬曆年間에 胡文煥『格致叢書』本 (簡稱胡本). 이 本은 楊 劉二序 및 凡例가 있고, 北京圖書館에 一部가 소장되어 있는데, 第六卷은 빠져 있고, 第五卷에 脫文이 없는

것은 胡本이 陳本을 直接근거하여 翻刻한 것임을 說明한다. 별도로 兩部の 胡本이 보이는데, 一部는 大連圖書館에 소장되어 있는데, 겨우 一에서 三卷까지만 있고, 다른 一部는 上海中醫學院圖書館에 소장되어 있는데, 大連藏本과 더불어 相同하지만, 또한 三卷의 末에 缺頁이 있다.

- 5) 明萬歷間刻本 (因有刪改, 故簡稱明節本). 이 本은 현재 北京 中國軍事醫學科學院에 소장되어 있다. 考察을 통하여 이 本과 裘本은 文字가 基本적으로 相同하니, 裘本이 근거한 底本이 곧 萬歷間刻本이다. 이에 근거하여 推斷하면, 明節本과 裘本은 모두 同一版本계통을 依據하여 刊刻한 것이 매우 가능하며, 或者는 裘本이 근거한 底本 곧 明節本이라고 하였다.
- 6) 1936年 裘吉生『珍本醫書集成』本 (簡稱裘本). 이 本은 慈溪 耕餘樓가 所藏한 明萬歷間刊本을 根據하여 排印한 것이다. 首에 楊 劉序가 있고, 刪節이 많으며, 凡例가 빠져있다. 書中에 무릇 陳本의 一些通假字를 모두 通行字로 고치게 되는데, “土”같으면 “吐”로 改作하였다. 기타 여러 곳에 增改한 文字가 두루 있다. 第五卷의 脫文은 王本 熊本과 같은데, 裘本이 의거한 底本이 王本이나 或은 熊本에 根據하여 더하여 刪을 改하여 成한 것이거나 或은 곧 前稱한 明節本인 것을 說明한다.
- 7) 日本活字九卷本. 日本人이 抄本한 『醫經小學』元晃跋에 이르기를 “又有植字本名『醫經小學』者하니 此是國朝(日本) 醫人之所編著者歟?아 皆闕卷也라”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日本에 도리어 하나의 活字九卷本이 있으나 다만 보이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以上으로부터 現在 이미 알고 있는 각종 版本은 모두 陳本으로부터 근원했고, 다만 해를 지나면서 刊刻하는 중에 陳本 (如胡本), 王本 (如熊本), 明節本 (如裘本)의 三個版本系統을 形成했음을 알 수 있다. 차차로 整理重刊하여, 이로써 가장 완전히 정리된 陳本이 底本이 되며, 各本을 參校하였다. 陳本은 세상에 전해지는 것이 極少하고, 王本, 熊本等은 또한 脫漏가 있으며, 胡本은 비록 完整하다 말할 수 있으나 다만 精校하지 아니하며, 裘本은 또한 刪節이 많다. 그래서 차차로 整理重刊하여, 이것이 비교적 完備된 善本이 된다고 말할 수 있다.

2. 『玉機微義』의 版本

- 1) 이른바 明洪武二十九年刻本. 王重民의 『善本醫籍經眼錄』에 의거하면 洪武二十九年刻本이 실려 있는데, 단지 二十一에서 二十九卷까지만 있어 九卷의 殘本이 된다. 上下黑口로 되어 있고, 版心魚尾의 사이에 書名인 “玉機”와 卷次 門類가 새겨져 있다. 正文門類治法 條目的 위에 모두 花魚尾가 있다. 論中條目과 某某之劑條目위에 모두 圓圈이 있다. 다만 吾師 史常永先生의 考證에 근거하면, 『玉機微義』는 책을 완성한 후에 아울러 刊行되지 않았다. 正統五年(1440) 王暹書跋中에 “此書稿雖存이

나 未行於世하야 故知之者鮮하니 姑蘇都憲陳公奉命來鎮陝右하야 於宗厚家得之하야 始命壽梓이라”하였다. 同時에 九卷殘本版式과 明嘉靖九年 黃焯刊本 및 日本寬文四年(1664) 刊本이 近似한데, 寬文本은 正德元年(1506) 劉宏濟本을 翻刻한 것이다. 이로 인하여 史常永先生은 九卷殘本이 응하여 正德本이 된다고 인식하였다.

- 2) 明正統四年(1439) 陳有戒刻本 (簡稱陳本). 이 本에는 正統四年 楊士奇序, 洪武二十九年 莫士安序, 劉純序가 있다. 楊序는 半頁七行, 行十三字이다. 正文은 半頁十一行, 行二十四字이다. 이것이 각 刻本の 祖本이 된다.
- 3) 明正統五年(1440) 王暹等校勘本 (簡稱王本). 王本은 陳本에 비하여 版框이 略小하고, 行格이 다르며, 楊 莫 劉三序를 제외하고, 多王暹等 正統五年書後이다. 此書는 殘蝕이 較重하고, 不少字跡漫換不清하다.
- 4) 明成化間刻本 (簡稱成本). 南京圖書館에 소장되어 있는 『玉機微義』一部는 分裝하여 六冊을 이루었는데, 바로 明正統間刻本이 된다. 이 書는 원래 清朝의 著名한 藏書家 丁丙이 所藏한 것이다. 그 版式과 行格이 正統四年本과 같지만, 그러나 第七卷前에 劉純의 『傷寒治例』一卷이 끼워져 있다. 『傷寒治例』는 원래 單行本이 되어 成化本『玉機微義』目錄中에는 『傷寒治例』條目이 없고, 다만 뒤에 보충한 墨書에 『傷寒』一條가 보이니, 이것은 藏書者로부터 『玉機微義』의 中에 訂入된 것이다. 이 本의 卷首에 楊 莫 劉序가 있고, 王跋은 없으니, 인하여 陳有戒本을 翻刻한 것인데, 다만 陳本 곳곳을 訂正한 것이 있다.
- 5) 正德元年劉宏濟重刊本. 明李維楨과 日本寬文刻本에 근거하면 『玉機微義』에 正德元年 汪舜民序가 실려 있는데, 當時의 福建省 舶曹郡 提督 劉宏濟가 明正德元년에 『玉機微義』를 重刊하였는데, 또한 王暹本을 翻刻한 것이 된다.
- 6) 明嘉靖九年(1530) 黃焯刊本 (簡稱黃本). 藍印本이 되며, 上海中醫學院에 一部가 소장되어 있다. 上海 所藏本에는 嘉靖九年黃焯序 莫序 劉序가 빠져 있고, 후에 楊士奇序를 補入하였다. 『四庫全書』 采進本이 곧 黃焯本이다.
- 7) 明萬歷間李維楨『合刊二種醫書』本 (簡稱李本). 이 本은 『玉機微義』와 虞搏『醫學正傳』의 合刊本이다. 李維楨으로부터 대략 萬歷六年(1578)에 浙江 按察使署에서 간행하였다. 首에 楊 莫(有刪節) 劉 王舜民序가 있으며, 後에 王暹跋이 있다. 王舜民序로부터 李本은 이에 劉宏濟本을 翻刻한 것임을 추측하여 알 수 있다. 또한 王暹跋에 근거해거 劉宏濟本이 王暹本을 翻刻한 것임을 알게 된다.
- 8) 淸康熙四十二年(1703) 沈佩遊重訂本 (簡稱康本). 首에 康熙四十二年 滄淚尤珍序가 있다. 이 本은 『玉機微義』에 대하여 매우 많은 訂補勘正하였고, 기타 版本과 더불어 모두 다르다. 비록 原貌를 이미 잃었지만, 다만 그 訂補것이 대부분 正確하여 인하여 이에 參考價値가 있다.
- 9) 日本寬文四年刊本 (簡稱寬本). 首에 汪舜民重刊序가 있고, 次에 楊 莫 劉序가 있으며, 後에 王暹跋이 있다. 其中을 따라가 보면 寬本이 正德元年 劉宏濟本을 근거한

重刊本이 됨을 得知할 수 있다.

이상을 따라 版本의 流傳衍革을 考查하여 『玉機微義』의 祖本이 正統四年 陳有戒刻本과 正統五年 王暹刻本の 兩個版本系統이 있는 것을 이미 알았다.

3. 『雜病治例』의 版本

『雜病治例』는 비록 여러 書目著錄에는 보이지만, 다만 流傳이 極少하다. 현재 겨우 遼寧中醫學院에 明成化十五年(1479) 刻本 一部가 소장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前에는 蕭謙序가 있고, 每半頁九行, 行二十字이다. 正文은 每半頁十一行, 行十八字, 上下黑口, 雙魚尾이며, 版心魚尾間에 書名, 頁數가 새겨져 있으며, 四周雙邊이며 板框高는 二十點六厘米이고, 寬은 十二點八厘米이다. 文中에 墨書로 된 日本片假名旁注가 있는데, 이는 日本人 收藏을 經유하여 批閱過한 것임을 드러낸 것이다.

4. 『傷寒治例』의 版本

- 1) 明成化十五年(1479) 蕭謙刻本. 현재 겨우 遼寧中醫學院에 一部가 소장되어 있고, 『雜病治例』와 더불어 同時에 刻本된 것을 알 수 있다. 刻本의 首에 蕭謙撰“『傷寒治例』引”이 있고, 每半頁九行, 行十八字이다. 正文은 半頁十一行이며 版式과 框의 大小가 『雜病治例』와 더불어 같다. 書中에 後書之片假名旁注가 있는데, 『雜病治例』와 더불어 同一收藏者인 것을 說明한다.
- 2) 清代丁丙藏明刻本(簡稱丁本). 이 本은 行格版式이 前의 蕭謙刻本과 不同하고, 또한 少量의 異文이 있으며, 아울러 明刊『玉機微義』中에 混訂되어 있으니, 마땅히 成化十五年 이후의 別도의 刻本이다.

IV. 劉純醫學全書 序文

1. 醫經小學序(楊士奇)

醫藥은 肇於三皇하며 至周六官에 有醫師하야 掌醫之政令하니 所以衛民之生也라. 歷代로 明於醫者는 皆有著書하니 去古愈遠하고 後生晚出하야 往往不究宗旨하니 甚者는 於脈證陰陽表裏經絡氣運之說에 一切懵然이라하니라. 唯執前人一定之方하야 以待病者用에 覲幸於萬一이나 而使斯民不幸히 不獲保終其天年者가 蓋莫甚於今이라. 比者면 憲臣有言하니 請於邑裏建學設教라하면 庶幾免人於夭闕라. 雖一時格於廷議하나 然其發於惻隱之誠하야 實切民用也라. 往年副都禦使陳公有戒가 刻劉純所輯醫家『玉機微義』하야 以爲施治之資矣하고 又欲爲

施教之資也니라. 并刻純所輯『醫經小學』하야 以傳其書라. 首엔 本草하고 次엔 脈訣 次經絡 次病機 次治法 次運氣하니 凡六卷이라. 一本於『素問』『靈樞』『難經』及張仲景, 王叔和와 至近代劉守眞, 張潔古, 李明之, 朱彥修 諸家之書하야 撮其切要하고 綴爲韻語하야 類粹以便 初學이라. 本末條理하고 明切簡備하야 醫學之指南而端本之書也라. 凡善學者皆務本이니 況 醫人之司命이 其可昧本而苟乎哉아. 學醫者는 誠能熟究是編하야 融會於心하면 將所行皆正 途요 所用皆正法이리니 觸類而長之하면 於歲論十全 何有哉아. 此書는 非劉氏면 莫之爲하 고 非陳公이면 亦莫之傳하리니 學醫之幸이요 生民之幸也라. 純의 字는 宗厚요 吳陵人이며 其父叔淵은 彥修之高第로 授受有自云이라.

正統三年己未歲 九月甲子에 光祿大夫柱國少師 兵部尙書 兼華蓋殿大學士 國史總裁 同 知經筵事 廬陵 楊士奇는 序하노라

(의약은 삼황에게서 시작되었으며 周의 六官에 의사가 있어 醫의 정령을 담당하여 백성 의 생을 보호하였다. 역대로 의학에 밝은 자는 다 저서가 있으니 옛것은 멀고 후생은 늦 게 나와서 왕왕히 근본 뜻을 연구하지 아니하니 심한 자는 맥증과 음양 표리 경락 기운의 말에 일체가 어리석은 것이라 하였다. 오직 전인의 일정한 처방만을 잡아 병자에게 씌에 만일 요행을 바라지만 이 사람이 불행히 그 타고난 수명을 마치도록 보존하지 못하는 것 이 대개 지금보다 심한 것이 없었다. 돕는 자라면 법을 취급하는 신하에게 말하여 읍리에 학교를 설립하기를 청한다면 거의 사람이 요절하는 것을 면할 것이다. 비록 한때에 논의 를 끝했으나 측은한 정성을 발하는 것이 백성이 쓰는데 질실한 것이다. 왕년에 부도어사 진유계가 유순이 의가를 모은 『옥기미의』를 새겨서 치료를 베푸는 자료를 삼았고, 또 가르침을 베푸는 자료로 삼고자 하였다. 아울러 純이 모은 『의경소학』을 새겨서 그 책을 전 하였다. 처음에 본초, 다음에 맥결, 경락 병기 치법 운기가 있어 모두 6권이다. 이 책은 『소문』『영추』『난경』 및 장중경 왕숙화로부터 근대의 유수진 장결고 이명지 주언수 제가의 책을 근본하여 절요를 모으고 운어로 하여 유취하여 초학에 편리하게 하였다. 본말이 조 리하고 밝고 간결하게 갖추어져서 의학의 방향에 좋은 기본이 되는 책이 된다. 무릇 학문 을 잘하는 자는 다 근본에 힘쓸 것이니 하물며 의사의 사명이 근본에 어두워야 어찌하 겠는가? 의학을 배우는 자는 진실로 이 편을 깊이 연구하여 마음에 융화하면 장차 행하는 바가 다 정도이고, 쓰는 바가 다 정법일 것이니 류를 따라 넓히면 歲論에 온전함이 있을 것이다. 이 책은 유씨가 아니면 지을 수 없고 진공이 아니면 또한 전할 수 없을 것이니 의학을 배움에 행운이요 백성의 행운이다. 순의 자는 종후이고 오릉인이며, 그 아버지 숙 연은 언수의 뛰어난 제자로서 배웠다고 스스로 말하였다.

정통 3년 기미세 9월 갑자에 광록대부 주국소사 병부상서 겸 화개전대학사 국사총재 동지경연사 여릉 양사기는 序하노라.)

2. 醫經小學序(劉純)

醫는 意也니 臨病立意以施治也라. 其書『內經』은 載運氣病源하야 靡不悉備라. 候天地之

變하고 究疾病之機하면 盡調治之理니 此神聖愛人之仁이요 拯羸救枉하니 濟物之至道也라. 醫道斯立에 秦越人演其精義述『難經』하고 張仲景論傷寒用藥定方하며 晉王叔和集次及撰『脈經』하야 以示後學하니 意亦至哉라. 經去聖遠하고 遺文錯簡하야 後學專方而惑意라. 幸唐太仆令王冰重整其義하야 啓大法之幽玄하고 釋神運之奧妙하니 析理於至眞之中하야 俾學者로 遇證審脈하고 用藥去病함에 根本無貶損이리니 醫之道明矣리라. 而其爲法이 制勝伐其勢하면 資化助其生이라. 扶危定亂之功이 本諸經論하고 知氣識病에 治理得焉이라. 嗟呼! 라 學必本於經하고 病必明於論하며 治必究於方이로대 而能變通而無滯라야 斯能盡夫立醫之意矣리라. 昔丹溪朱先生은 以醫鳴江東한대 家君親從之遊하야 領其心授라. 純生晚學陋하야 承親之訓有年矣라. 其於經論習而玩之에 頗嘗得其指歸라. 不自揆度하고 竊以先生之旨하야 輯其醫之可法하나니 本諸經論之精微하고 節目更爲定次하야 歌語引例具圖하야 以便記習이라. 至於脈訣之未備者엔 亦爲增正하야 名曰『醫經小學』이라 하니라. 蓋欲初學者가 得以因流尋源하야 而不蹈夫他岐之惑이라. 有志於古神聖愛人濟物之道者요 無諍愚以管窺而蠡測이리오. 或有未至엔 矜其志而加正焉하면 則不唯醫道之幸이요 亦斯民之幸也니라.

洪武二十一年 冬十一月朔旦에 吳陵 劉純은 序하노라

(醫는 意이니 병에 임하여 뜻을 세워서 시치하는 것이다. 『내경』에서는 운기와 병원을 기재하였는데 다 갖추지 않음이 없다. 천지의 변화를 살피고 질병의 기틀을 연구하면 調治하는 이치를 다 할 것이니 이것이 神聖이 사람을 사랑하는 仁이요 고달픔을 돕고 굶은 것을 구하니 만물을 구제하는 지극한 도가 된다. 의도가 이렇게 섬에 진월인이 그 정미로운 뜻을 넓혀 『난경』을 저술하고, 漢의 장중경이 상한의 용약을 론하고 처방을 정하며, 晉의 왕숙화가 차례를 모으고 아울러 『맥경』을 선하여 후학에게 보여주니 뜻이 또한 지극하도다. 성인의 경전은 멀고 남겨진 글은 섞여서 후학이 처방만을 오로지해서 뜻이 미혹하여 졌다. 다행히 唐의 태복령 왕빙이 그 뜻을 거둬 정리해서 큰 법의 깊고 오묘함을 열고, 귀신같이 운행하는 오묘함을 해석하니 지극히 참된 가운데에서 이치를 해석해서 배우는 자로 하여금 증을 봄에 맥을 살피고 약을 써서 병을 물리침에 근본이 폄하되어 달리는 것이 없을 것이니 의도가 밝아졌다. 그 법이 그 기세를 승별하면 滋化가 그 생함을 도울 것이다. 위태함을 분들과 어지러움을 안정시키는 공이 모든 經論에 근본하고 氣를 알고 病을 앞에 이치를 얻을 것이다. 아아! 학문은 반드시 경전에 근본하고 병은 반드시 론에 밝아야 하며 치료는 반드시 처방에서 구하되 능히 변통하여 막힘이 없어야 능히 의학을 세우는 뜻을 다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날 주단계 선생은 강동에서 의로써 이름을 떨쳤는데 부친이 친히 따라가 유학하여 心授를 깨달았다. 순은 늦게 태어나고 학문이 비루하여 부친의 가르침을 계승한지 여러 해가 되었다. 경론을 배우고 익숙해져서 자못 그 귀지를 얻는 것을 맞보았다. 스스로 헤아리지 아니하고, 선생의 뜻을 따라서 의학의 법이 될만한 것을 모았으니 여러 경론의 정미한 것에 근본하고 절목으로 다시 차례를 정해서 노랫말로 예를 들고 그림을 갖추어 기록하고 익히기 편리하게 하였다. 맥결의 미비한 것에 이르러서는 또한 더하고 바르게 해서 『의경소학』이라 이름하였다. 대개 초학자로 하여금 흐름을 따라 근원을 찾아서 다른 기이한 것에 미혹되지 않게 하였다. 옛날 神聖의 사람을 사랑하

고 만물을 구제하는 도에 뜻을 두었으나, 천박한 식견으로 심원한 이치를 헤아리는 것에 어리석음을 꾸짖음이 없겠는가? 혹 이르지 않음이 있더라도 그 뜻을 가상히 여기고 정정을 가한다면 의도의 행운일 뿐만 아니라 또한 백성의 행운일 것이다.

홍무 21년 동11월 삭단에 오릉 유순은 序한다.)

3. 玉機微義序(楊士奇)

都察院 副都禦史 姑蘇 陳公有戒가 奉命填撫陝西라. 仰體皇仁하고 躬勤蚤暮하며 蘇息彫弊하여 民用向安이라. 遂旣邊疆하여 亦旣完固라. 時有餘暇하여 其卹人之念이 未始或忘하여 苟可利之에 爲之恐緩이라. 問遇醫家『玉機微義』一編하여 謂可以濟人하니 捐俸僦工하여 刻以廣布라. 於是에 布政郝公珩과 王公敏이 合其同官志在施濟者하여 效協助焉이라. 旣成에 郝公以求予序하니라. 此編은 輯於會稽徐彥純을 吳陵劉宗厚續有增益하니 皆明於醫者라. 凡五十卷으로 門分類聚가 於論因證治에 條理粲然하여 旣詳且備矣라. 夫醫家는 神農, 軒岐, 伊尹及秦越人, 張仲景之書를 萬世所宗이니 不可易也라. 歷晉, 唐, 宋代有明者라. 近代에 張元素가 起北方하여 蓋得神授하여 深造闡奧라. 再傳李明之하고 三傳王好古하며 南方엔 朱彥修得私淑焉하여 遂爲醫家之正派라. 彥純과 宗厚는 又私淑彥修者也라. 論者는 謂元素醫家之王道라. 蓋王道는 以養民爲本이니 元素之法이 厚脾胃爲要니 此知本之務也라. 是編은 主『素』, 『難』, 『金匱』及元素一派之旨하고 若諸家治法不倍此者면 亦旁采而附益之라. 雖中醫執此施治하면 可以成功이리라. 如病者면 有能知之하면 亦必不爲庸醫所誤리니 其所利濟가 豈小補哉아. 醫者는 聖人仁民之術也라. 有戒諸公이 於此編에 協志하여 以廣其傳하니 蓋其不忍人之心所不能已也며 將其不忍人之政 詎可涯歟아.

正統 己未 正月 癸卯에 光祿大夫少師 兵部尙書 兼華蓋段大學士 廬陵 楊士奇는 序하노라

(도찰원 부도어사 고소 陳有戒가 명을 받아 섬서지역을 다스렸다. 위로는 황제의 은혜를 받아 아침저녁으로 몸소 근면하고 폐단을 없애서 백성들이 편안하였다. 변방의 경계를 맡았으나 또한 이미 완전히 견고하였다. 때에 여가가 있어서 사람을 구출하는 생각을 혹 시라도 잇을까 진실로 이롭게 하는 것을 늦추어 질까 두려워 하였다. 사이에 의가에게 『옥기미의』한 편을 얻어 사람을 구제할만 하니 봉록을 덜고 工人을 모아 새기게 하여 널리 퍼지게 하였다. 이에 布政 郝珩과 王敏이 구제함을 베푸는 것에 官의 뜻을 같게 합하여 협조하였다. 이미 이루어 집에 郝公이 내게 서문을 지을 것을 구하였다. 이 편은 회계 서언순이 輯한 것을 오릉 유중후가 이어서 증익하였으니 다 의학에 밝은 사람이었다. 무릇 50권으로 문을 나누고 류취한 것이 원인을 론하고 증치하는 것에 조리가 분명하여 이미 상세하고 완비되었다. 무릇 의가는 신농 헌기 이윤 및 진월인 장중경의 책을 만세에 으뜸하는 바니 바꿀 수 없다. 진 당 송대에도 밝은 자가 있었다. 근대에 장원소가 북방에서 일어나 대개 神授함을 얻어 깊이 오의를 지었다. 다시 이명지에게 전하고 왕호고에게 세 번 전하여졌으며, 남방인 주언수가 사숙해서 따라서 의가의 正派가 되었다. 언순과 중후

는 또한 인수를 사숙하였다. 본자는 元素를 의가의 왕도라고 이른다. 대개 왕도는 백성을 기르는 것이 근본이니 원소의 범이 비위를 중요시하니 이는 근본을 힘쓸 것을 아는 것이다. 이 편은 『소문』 『난경』 『금궤』 및 원소 일파의 뜻이고, 만약 제가의 치법이 이것에 어긋나지 않으면 또한 旁으로 채택하여 더하였다. 비록 보통의사라도 이것으로 시치하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병자라면 능히 그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니 또한 반드시 용의의 잘못된 바가 되지 않을 것이니, 그 이롭게 하고 구제하는 바가 어찌 조금의 보탬도 없겠는가? 의술이라고 하는 것은 성인이 백성을 사랑하는 술이 된다. 有戒와 諸公이 이 편에 뜻을 협력하여 그 전함을 넓혔으니 대개 사람의 마음을 참지 못하는 것을 능히 그치지 않는 바가 되며, 장차 사람의 정치를 참지 못하는 것을 어찌 다하겠는가?

정통 기미 정월 계묘에 광록대부소사 병부상서 겸 화개전대학사 여릉 양사기는 序한다.)

4. 玉機微義序(劉純)

醫學은 自『內經』而下로 歷數千載하니 善斯道而作者非一人이라. 其間에 有言診者하고 有論證者하며 有集方者하니 莫不皆裨於世用이라. 然이나 奧妙之旨를 奚所發揮아. 雖世異病殊나 以方取驗이 若出一人之手라. 迥不知世運之遠하니 作者之衆이라. 然人同此心하고 心同此理라 漢張仲景은 本經旨傷寒之法하야 言診論證하고 以例處方하야 後之學者가 得有所據라. 晉唐以來로 其道益廣하야 用法者不一이라. 止言雜病診證하고 或求奇示怪하야 秘而不傳이라하니라 好事者는 慕其風하야 而繼作하니 或止據於方하야 雖有一源一意之可觀이나 又非百代可行之活法也라. 始에 純은 從學於江左馮先生庭幹하고 間嘗請其義하야 授以會稽徐先生所著書一帙이라. 觀其法하고 求其意컨대 蓋出於內經이나 非前所謂也라. 且古今作者가 非一人이나 其法各得一意하니 而後人執之該治에 不知變通之法하고 與經旨多相違戾하니 不無得失이라. 是以로 先生究探古今作者의 源意하니 據金劉守眞, 元李明之, 朱彥修諸氏論集이 本乎經旨而折衷其要하야 發明中風, 痿, 痰, 泄, 瘡諸門의 診證方例가 非一源一意요 而有通變乎百證千方者하니 斯爲古今可行之活法也歟인저 豈止集方而已리오. 先生의 諱는 彥純이요 字는 用誠이라. 蚤歲嘗客吳中하야 以『春秋』教授鄉之俊彦이라. 今沒十有二年에 始遇其從弟用中하고 獲詢先生學行하야 知深於醫者也라. 又嘗見其『本草發揮』는 竊意前書必 有全帙이나 惜今不可見矣라. 嗚乎아! 歲月云邁하야 九泉不作하고 幸而遺墨昭然니 生意如在라. 以先所著에 取咳, 熱, 火, 暑, 燥, 濕, 寒等門診證方例하야 妄意續於諸門之末이라. 雖心同理나 而不免獲狂僭之過라. 因據諸『內經』至數至名之旨하야 乃目其書曰『玉機微義』하니 未知果是否아 後之明哲이 有所正焉하며 於是乎書하노라

時洪武 丙子 二月朔旦에 吳陵 劉純은 序하노라

(의학은 『내경』이하로 수천년이 지났는데 이 도를 잘 하여 저술한 자가 한사람이 아니다. 그 사이에 진단을 말한 자가 있고, 증을 론한 자가 있고, 처방을 모은 자가 있으니, 세상에 쓰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오묘한 뜻을 어찌 발휘하였겠는가?)

비록 세상이 다르고 병이 다르나 처방으로 경험을 취한 것이 한 사람의 손에서 나오는 것과 같다. 멀리 세운의 먼 것을 알지 못하고 지은 자가 많았다. 그러나 사람은 이 마음과 같고, 마음은 이 이치와 같다. 한의 장증경은 본경에서 상한의 법을 가리켜 진단을 말하고 증을 론하고 처방을 나열하여 뒤의 학자가 근거한 바를 얻을 수 있다고 뜻을 두었다. 진 당 이래로 그 도가 더욱 넓어져 법을 쓰는 자가 한결같지 않았다. 다만 잡병의 진증만을 말하고 혹은 기괴한 것을 구하고 나타내며 비밀스럽게 전하지 않았다. 일삼기 좋아하는 자가 그 풍토를 사모하여 연이어서 지으니 혹은 단지 처방에서 근거하여 비록 한가지 연원 한가지 뜻을 볼 수는 있으나 또한 백대에 행할만한 活法은 되지 않는다. 처음에 유순은 江左의 빙정간 선생에게서 배우고 사이에 그 뜻을 구하건대, 다 『내경』에서 나왔으나 전에 말한 바는 아니었다. 또한 고금에 저서한 자가 한 사람이 아니라 그 법이 각기 한 뜻만 얻어서 후인이 잡고 치료함에 변통하는 법을 알지 못하고 경의 뜻과 많이 서로 어긋나니 득실이 없지 않다. 이로써 선생이 고금의 저자의 본래의 뜻을 탐구하니 금의 유수진, 원의 이명지, 주언수의 론집이 經旨에 근본하니 그 요점을 취하여 中風 痿 痰 泄 瘕의 諸門을 밝힘에 진증방례가 한가지 근원과 의미만이 아니요 백증 천방에 변통함이 있으니 이것이 고금에 행할만한 活法이 되니 어찌 단지 처방만 모았을 뿐이겠는가? 선생의 휘는 彦純이요 자는 用誠이다. 일찍이 甯中을 찾아와 『춘추』로써 향리의 재주있는 사람을 가르쳤다. 지금에 작고한지 12년에 비로소 從弟 用中을 만나서 선생의 학행을 얻고 의학을 탐구한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일찍이 보았던 『본초발휘』는 사사로이 보건대 前書와 반드시 온전한 책이 되나 안타깝게도 지금은 볼 수 없다. 아아! 세월이 돌아 구천에서 지을 수 없고 다행히 남긴 글이 밝으니 선생의 뜻이 있는 것 같았다. 선생의 저서한 바에 咳 熱 火 暑 燥 濕 寒等門의 진증방례를 취하여 妄意로 제문의 末에 이었다. 비록 마음이 이치와 같으나 참람한 허물은 면하기 어렵다. 인하여 『내경』의 지극한 이름의 뜻을 취하여 그 책을 『옥기미의』라고 이름하니 과연 옳은지 그른지 알지 못하겠다. 뒤의 뛰어난 사람이 바르게 하기를 바라며 이에 글을 쓴다.

때는 홍무 병자 3월삭 아침에 오릉 유순은 序한다.)

5. 雜病治例序(蕭謙)

予自髫年人郡庠하여 讀書之餘에 有志醫術이라. 又恐工夫分用하고 急務相妨이라. 竊嘆此術하고 自爲之固不及이러니 若得前聞人良方錄傳하면 不惟及於一家一國이요 且遍於天下而傳於後世하리니 豈不愈於身親爲之者耶아? 博訪旁求하나 累月經年에도 無可意者라. 迨學天順己卯鄉試하고 乙未中進士하야 觀政戶部러니 奉命給賞甘州官軍이라하니라. 甘州는 卽漢張掖酒泉郡也라. 而名醫劉宗厚는 □□□□□□□□ 神方妙術이 猶有存者라. 乃延其後人하야 禮貌之하고 懇求之하니 慨然以『太素脈訣』, 『雜病治例』見與라. 予如獲隋珠趙璧이러니 喜不自勝이라. 連日檢閱研究하야 知其切脈辨證하고 療病用藥에 深有奧妙하야 綽有法度라. 救急扶危하고 起死回生하야 與夫吉凶貴賤이 亦占於此라. 卽欲板行하나 則力又不及焉이라.

今幸以非材來尹應天之上元하야 遂捐俸資하야 以償夙願하니 且序其得之之由하노라. 噫라 儒先有云호대: 一命之士는 苟存心於愛物하니 於人必有所濟라. 予讀儒書하고 叨承上命하야 而爲民牧하니 敢不以濟人利物爲心乎아? 是書之行에 多人得之하면 不啻記裏車之有所憑이라. 因諫察理하고 循例治病하면 其濟利豈淺淺哉아.

成化 己亥歲 秋七月에 旣生魄賜進士 第知上元 縣事 長安 蕭謙은 書하노라.

(내가 초년부터 郡의 태학에 들어가서 글을 읽은 후에 의술에 뜻을 두었다. 또한 공부에 쓰임을 나누고 급히 힘을 것이 서로 방해가 될까 두려웠다. 간절히 의술을 탄식하여 스스로 하는데 진실로 미치지 못하니 만약 전인의 좋은 방법을 기록하여 전한 것을 얻는다면 오직 한 집안과 한 국가에 미칠 뿐만 아니라, 또한 천하에 널리 퍼져서 후세에 전하게 할 것이니 어찌 자신과 친한 사람에게 하는 것 뿐이겠는가? 널리 사방으로 구했으나 세월이 지나도 뜻에 맞는 것이 없었다. 하늘이 순하여 기묘 향시에 천거되어 을미에 진사가 되어 호부에서 정사를 보니, 명을 받들어 甘州 軍官이 되는 상을 받았다고 하였다. 甘州는 곧 漢의 張掖 酒泉郡이다. 名醫유종후는 …… 신묘한 방술이 있다고 하였다. 이에 그 후인을 만나서 예를 다하고 간절히 구하니『태소맥결』과『잡병치례』를 볼 수 있었다. 내가 趙壁에서 珠를 얻은 것과 같아서 기쁨을 이루 말 할 수 없었다. 매일 매일 살펴보고 연구하여 보니, 맥을 보고 변증하면 병을 치료하고 약을 쓰는데 더욱 오묘하여 법도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위급함을 구하고 기사회생하여 길흉과 귀천을 이것으로 훤히 알 수 있었다. 곧 판각하려고 하나 힘이 또한 부족하였다. 지금에 요행히 변변치 못한 재능으로, 하늘의 上元에 응하여 봉록과 자금을 덜어 숙원에 보답하여 주니 이에 그 얻게 된 연유를 序하였다. 아아! 선비가 먼저 이르기를 선비의 한 목숨은 진실로 만물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들 것이니 사람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구제할 바가 있게 된다. 내가 儒書를 읽고 외람되어 上命을 계승하여 백성을 기르는데 감히 사람을 구제하고 만물을 이롭게 하는 것으로 마음을 삼지 않겠는가? 이 책이 행하여 많은 사람이 얻는 것이 어찌 마을 수레의 의지하는 것 뿐이겠는가? 요결에 따라 이치를 살피고 예를 따라서 병을 치료하면 구제하고 이롭게 하는 것이 어찌 천하고 천하겠는가?

성화 기해세 추7월에 기생백석 진사 제지상원 현사 장안 소겸은 書한다.)

6. 傷寒治例引(蕭謙)

傷寒治例者는 名醫劉翁之所著也라. 翁의 名은 純이요 字는 宗厚라. 其先은 淮南人으로 以事移關中하야 遂家焉이라. 予는 晩生하야 不及識翁이나 因企慕而訪求翁後하야 見其譜牒乃簪組裔也라. 翁은 爲人博極群書호대 尤精醫道라하니라. 厥考컨대 橘泉先生이 受業丹溪之門하고 及翁하야 繼之하니 醫道大行하고 家聲大著라. 遂以所學於父師者가 爲此書하니 蓋有以邇『素問』之源하고 撮仲景之旨라. 治傷寒者가 循此而行하면 如射而中하야 獵而獲이리라. 足以起死回生하고 易危爲安하야 無夭橫之危이니 皆躋仁壽之域矣리라. 予得而刻之하야 蓋有以廣傳翁之德惠라. 不特此爾요 翁之所著에 又有『醫經小學』, 『玉機微義』하니 傳於

世云이라.

成化 己亥歲 陽月 吉旦에 易庵居士 蕭謙은 書하노라

(상한치례는 名醫 劉翁의 저작이다. 옹의 이름은 純이고 자는 宗厚이다. 유순의 선조는 淮南人으로 關中으로 이사하여 가문을 이루었다. 나는 늦게 태어난 옹을 알 수는 없으나, 기연을 인하여 옹의 후예를 방문하여 가보를 보았는데, 지위가 뛰어난 자취가 된다. 옹은 여러 방면에 널리 뛰어났으며 의도에 더욱 정밀하다고 하였다. 고찰하건대 橘泉선생이 단계의 문하에서 수업하였고 공에 이르러 계승하니 의도가 크게 행하고 집안의 명성이 크게 드러났다. 따라서 스승인 아버지로부터 배운 것이 이 책이 되었으니 대개 『소문』의 근원을 향하고 중경의 뜻을 모았다. 상한을 치료하는 의사가 이를 따라 행하면 활쏘는 것처럼 직중하여 수렴하여 포획할 것이다. 죽히 기사회생하고 위대한 것을 바꾸어 편안하게 하여 비명횡사하는 위태함이 없을 것이니 다 仁과 壽의 영역이 된다. 내가 얻어서 새겨서 옹의 德惠를 널리 전함이라. 이것뿐만이 아니라 옹의 저서에 또한 『의경소학』 『옥기미의』가 있으니 세상에 전해졌다.

성화 기해세 양월 길일에 역암거사 소겸은 書한다.)

V. 劉純醫學著作과 學術思想

『劉純醫學全書』는 劉純의 現存하는 四種醫學著作을 모두 수록하였으니, 곧 『醫經小學』 六卷 『玉機微義』 五十卷 『傷寒治例』 一卷 『雜病治例』 一卷으로 모두 五十八卷 八十餘萬字이다. 그 著述은 上으로 『內經』 『難經』의 經旨를 받들고, 下로 諸家의 精華를 널리 모으고, 中으로 自己의 臨床心得을 기술하였다. 이는 理論과 實踐을 아울러 重시하여 集大成한 著作의 일부이다. 이 외에 尙著에 실린 것을 근거하면 『壽親養老補遺』 『太素脈訣』이 있다고 하는데, 애석하게도 이미 亡佚되었다.

현재 있는 文獻記載에 의하면 『醫經小學』은 劉純의 第一部醫學著作으로 明洪武二十一年 (1388)에 책이 완성되었다. 本書는 初學者가 入門하는 著作이 되는데, 內容은 歌訣形式으로 書寫되었다. 書中の 首에 朱丹溪 및 그 業師 丘克容의 習醫要語를 모아 “醫之可法爲問”이라 題하였다. 그 丹溪答門人問을 실은 것으로, 首에 丹溪入室弟子인 趙以德이 지은 『丹溪藥要或問』이 보이는데, 모두 丹溪가 趙氏에게 面訓親授한 말이 된다. 『丹溪藥要或問』은 流傳이 極少하여 明清以來로 거의 失傳되었는데, 이로 인하여 丹溪의 이러한 語錄이 劉純을 빌려서 巴야흐로 널리 퍼지게 되어, 後人이 朱丹溪의 醫學思想을 研究하는데, 重要한 第一手資料를 提供한다. 劉純은 前人이 비록 『內經』, 『難經』, 仲景, 叔和가 있지만, 다만 “經去聖遠하여 遺文錯簡이라.”고 指出한 함을 인하고, 또한 “後學專方而惑意”라 擔心하고, 同時에 學醫者에게 “學必本於經하고 病必明於論하며 治必究於方하되 能히 變通而無滯하여야 이것이 능히 무릇 立醫之意를 다할 수 있다.”라고 強調하였고, 前賢의 “要

節이 散見諸經하니 而初入者가 難究其本領이라.”하여 그래서 『內經』 『難經』과 金元諸家醫學著作까지 廣輯하여 合計가 二十餘種이 된다. 다 그 要旨를 모으고 編次를 상세히 하고, 精練概括할만한 語言을 써서 歌訣을 撰作하고, 사이에 按語를 附하여 자기의 견해를 기술하고 具圖를 引例하여 記習하기 편리하게 하였다. 正文의 後에 按語를 除外하고, 또한 대양 淺顯易懂한 注釋이 있어서 初學에게 편리하게 하였다. 그 중에 卷一은 本草, 卷二는 脈訣, 卷三은 經絡, 卷四은 病機, 卷五은 治法, 卷六은 運氣인데 理法方藥을 悉備했다고 이를 만하다. 書中에 論한 바가 비록 모두 前人으로부터 나왔으나 다만 提要取舍와 宗法立意와 厘訂綱紀가 다 그 獨到한 견해가 있다. 만일 本草學方面같으면 이것은 藥物의 氣味歸經을 중요시하여 『珍珠囊』에서 取法하였으나 아울러 『珍珠囊』에서 수록한 藥物基礎위에 藥物 七十六種을 新增하였다. 脈法方面에서는 이것은 『褚氏遺書』에서 근본하고, 王叔和『脈經』에서 취하지 않아서 左尺은 腎과 膀胱에 배속하고, 右尺은 三焦와 心包絡에 배속하여 아울러 “凡在左者皆克諸右하고 凡在右者皆受左克하니 此는 臟腑五行自相克制니 脈所當然也라”고 指出하였다. 이것은 生克制化를 따라서 自然對應關係方面에서 이러한 종류의 配位法의 合理性을 闡明하였다. 病機 治法中에 있어서는 곧 金元諸家를 博采하였으나 『內經』으로 指歸를 삼았다. 劉純의 醫學思想은 基本적으로 朱丹溪를 師承하여 “陽常有餘, 陰常不足”에서 나아가 養陰을 중요시 하였으니 진실로 丹溪가 倡導한 바가 되나, 다만 그 弟子를 教誨할 때에는 곧 먼저 『內經』을 熟讀하는 것이 중요하고, 후에 諸家를 博覽하여 그 長한 바를 취하라고 強調하였다. 여기서 말하기를 “外感法仲景하고 內傷法東垣하니 則仲景治法更合『內經』이라.”고 하였고, 여기서 또 말하기를 “先仲景書者는 以傷寒爲主하여 恐誤內傷爲傷寒하고, 先東垣書者는 以胃氣爲主하여 恐誤外感爲內傷하고, 先河間書者는 以熱爲主하여 恐誤寒爲熱이라하니 不若先主於『內經』하여 則自然活潑潑地라.”고 하였다. 劉純은 大體로 나아가 이러한 하나의 基本思想을 按照하여 『醫經小學』을 撰著하여 初學者를 引導하고 아울러 自己의 醫學道路를 指導하였다. 明代 光祿大夫 大學士 楊士奇가 이 書에 대하여 매우 높은 評價를 내려 주었는데, 여기서는 말하기를 “學醫者는 誠能熟究是 編하여 融會於心하면 將所行皆正途요 所用皆正法이라.”고 하였다.

『玉機微義』는 劉純이 元末明初에 徐彥純이 撰한 『醫學折衷』을 이어 增하여 만든 것인데, 明洪武二十九年(1396)에 책이 완성되었다. 徐彥純의 字는 用誠이고, 浙江會稽人이다. 徐彥純은 또한 『本草發揮』 三卷을 撰한 것이 있다. 『醫學折衷』一書는 원래 단지 十七門이 있다. 劉純은 그 完帙되지 않은 것에 뜻을 두고 이에 그 體例를 모방하여 그 未備한 것을 보충하여 이어서 三十三門을 더하였는데, 門이 각 一卷으로 總計 五十卷으로 이름을 바꾸어 『玉機微義』가 된다. 그 中에 一에서 七卷, 三十四에서 四十三卷까지 合計 十七卷은 徐彥純이 原著한 『醫學折衷』이 되는데 全部內容이 現存한다. 八에서 三十三卷, 四十四에서 五十卷까지 合計 三十三卷은 劉純이 內容을 이어 增하여, 『玉機微義』를 이루게 하여 內, 外, 婦, 兒, 五官等各科를 一部包括하게 하여, 內容이 齊備된 指導意義가 있는 中醫學 專著가 된다. 『醫學折衷』은 원래 단지 中風, 痿證, 傷風, 痰飲, 滯下, 世瀉, 瘡, 및 頭痛, 頭眩, 咳逆, 心下痞滿, 吐酸, 瘧, 萬風, 風癩, 破傷風, 損傷 등 十七個門類가 있는데, 이것

은 一部臨床에 대하여 醫書에 설명하여서, 內容이 顯然하여 十分不足한 것이 된다. 劉純이 補增한 門類를 합계해보면 咳嗽, 熱, 火, 暑, 濕, 燥, 寒, 瘡瘍, 氣證, 血證, 內傷, 虛損, 積聚, 消渴, 水氣, 脚氣, 諸疝, 反胃, 脹滿, 喉痹, 淋悶, 眼目, 牙齒, 腰痛, 腹痛, 心痛 및 癩疹, 黃疸, 霍亂, 厥, 痺證, 婦人, 小兒로 모두 三十三種이 있다. 별도로 徐氏의 원래 있는 門類中에 두곳에 增補한 것이 있는데, 하나는 卷一 中風門中에 “內因似中風論”一條를 增하였고, 하나는 卷七 瘡門中에 “瘡非脾寒及鬼食辨”一條를 增하였다.

『玉機微義』中에 徐氏按語와 劉氏按語가 있는데, 兩者按語는 모두 先賢의 醫論 및 方藥을 採摘한 것에 대하여 評判을 가하여 그 是非를 論하였다. 徐氏가 原著한 內容中에 徐氏按語는 “按”字로 注明하고, 劉氏按語는 곧 “謹按”으로써 標示하였다. 劉氏가 增補한 卷中에 劉氏 스스로는 곧 或은 “按”字로 標하고, 或은 “謹按”으로 標하였다.

『玉機微義』는 明代以前 諸家의 一部를 모아 大成한 綜合性 醫學全書이나 다만 其他의 類書와 더불어 全書가 不同하다. 이는 이미 類抄, 資料匯編을 廣輯한 것이 아니고, 摘句를 尋章한 것도 아니라, 各家를 雜合하여 자기의 說로 삼아서, 重點이 “診證方例”의 規範模式에 있어서, 歷代各家의 不同한 理論見解를 精選하여 類聚하여 條分縷析하였다. 다만 무릇 重復荒誕과 巫祝迷信한 것은 하나도 矚지 않았다. 아울러 또한 原著에 충실하고, 條條마다 來歷出處를 標明하였다. 더욱이 그 前人의 理論觀點에 대하여 능히 그 得失을 판단하고 그 微旨를 發하며 그 異同을 品하여, 거의 條條마다 評論이 있고, 方方마다 分析이 있어서, 겨우 資料의 羅列과 堆積이 절대로 아니다. 대략 統計해보면 劉純이 作한 按語가 八百三十餘條로 近七萬言로 採錄한 醫家は 『內經』, 『難經』, 仲景, 『脈經』으로부터, 當時의 醫家에 이르기까지 포함 四十八人으로 多하여, 가히 그 廣輯博覽함을 볼 수 있으며, 衆家의 長을 薈萃하여 學術上 一格에 구애되지 않고, 一家의 言만을 恪守하지 않았다. 劉純은 衆家之論에 대하여 이미 分析評判하고 또한 繼承發展하였으며, 그 分析評判과 繼承發展은 말할 것도 없고, 모두 劉純의 精深한 中醫藥理學理論造詣와 豐富한 臨床實踐經驗을 匯聚하고 體現하였다.

『玉機微義』는 每卷이 一門이고 每門은 一證으로 每證의 下에 모두 먼저 先賢의 本證과 有關한 理法方藥을 摘錄하였으며, 그 中에 首는 『內經』, 『難經』, 仲景 등이 되고, 다음에 著名醫家의 論述을 列하고, 後에 方藥을 述하였다. 徐, 劉按語는 곧 每論每方의 後에 書하였다. 이것은 나아가 後學者로 하여금 先賢의 有關한 理論과 方藥論述을 이해한 後에, 徐, 劉按語를 通過하여 그 是非를 알고, 그 精華를 取하여 나아가 誤歧論을 免할 수 있게 해준다. 이것은 發展된 眼光과 實事求是의 科學態度로 疾病을 認識하는 것을 통하여, 療效를 提高하여 의심없이 正確하게 한다. 이로 인하여 『玉機微義』는 博而不濫하고 廣而有精하며 述而有作하다 이를 만하니, 이는 後學에게 啓迪할만한 好書의 一部가 된다.

徐彥純과 劉純의 醫學思想은 대체로 丹溪를 師法하고, 旁으로 劉河間, 張潔古, 李東垣 등의 金元諸家를 參하였다. 다른 사람처럼 一家之學을 恪守하지 않고, 그 師에 대하여 門戶의 見에 능히 구애되지 않아서, 감히 實事求是의 科學態度로 나아가 評判을 行하였다. 卷十 火門같은 劉河間의 神芎丸에 그 이르기를 “治一切熱證하니 常服保養이라 除痰飲하

고 消酒食하며 淸頭目하고 利咽膈하며 能令遍身結滯宣通하여 氣利而愈하니 神強體健하고 耐傷省病이라.”이라 하였는데, 按語에 이르기를 “下濕熱하고 導滯甚捷이라. 但云常服強神과 體健省病은 與前方(指當歸龍膽丸)의 云治腎水陰虛와 더불어 虛損者에 恐未必然이라.”고 하였고, 또한 卷一 中風門같은 東垣先生이 이르기를 大秦荒湯, 羌活愈風湯, 天麻丸이 “調經養血安神之劑”가 된다고 하였는데, 按語에서는 “此三方較之『局方』雖優나 亦所得不償所失也니 何以爲然?이오 秦荒湯, 愈風湯雖皆有補血之藥이나 而行經散風之劑居其大半이니 將何以養血而益筋骨也?리오 天麻丸은 養血壯筋骨이니 庶幾近理라.”고 指出하였다.

『玉機微義』는 理論과 應用的 統一을 매우 重視하였는데, 여기에서는 前人的 觀點을 盲從하지 말고, 分析하고 取舍하라고 하였다. 卷一 中風門같은 宋·嚴用和에 대하여 “中風先調氣說”의 評論을 “此說眞氣先虛하고 榮衛空疏하면 邪氣乘虛而入이라하니 擴前人所未發이라.”고 하였지만, 그러나 嚴氏가 用八味順氣散을 써서 中風을 治療하는 것에 대해서는 곧 異議를 提出하고, “其用藥則未也니 何者?오 四君子補脾胃中氣藥也로대 更用白芷去手陽明經風하고 烏藥通腎胃間氣하며 陳皮理肺氣 하고 青皮瀉肝氣라 하니 若風果在手陽明經하고 而肝肺腎胃之氣實者可用이나 但人身經有十二하야 皆能中邪하고 五臟之氣가 互有勝負하니 此方能盡其變乎?아”라고 指出하였다. 卷三十五 頭眩門에서는 “直指香橘飲”方後에 徐彥純按에 이르기를 : “『直指方』云 : 淫欲過度하면 腎家不能納氣歸元하야 使諸氣逆奔而上하니 此眩暈出於氣虛也라 吐衄崩漏는 肝家不能收攝榮氣하야 使諸血失道妄行하니 此眩暈生於血虛也라. 夫既曰腎家不能納氣하야 使氣奔上한대 而用此香散辛熱之藥이라하면 此藥果能降氣乎?아 又曰氣虛한대 此藥果能補氣乎?아 又曰血虛加芎, 歸, 官桂라하나 夫血虛用芎, 歸則可矣로대 所加官桂與丁香, 木香等藥은 縱使血有虛寒엔 亦難例用이로대 若血虛有熱者면 其害將何如哉?아”라 하였는데, 이러한 하나의 評論分析도 十分透徹準確하니 後學에 대하여 확실히 指導意義가 있다. 劉純은 이 門 卷末에 “頭暈諸方은 用藥俱未切當하니. ‘直指香橘飲’之說이 尤爲背理라 大抵外邪之感엔 理宜解表하니 但隨其風寒暑濕以治하고 痰涎內蓄者엔 必當淸痰爲先하고 氣虛者宜補氣하니 如東垣之法이오 血虛者宜補血하니 如四物增損之類요 若腎虛而氣不降者면 又當益陰而補腎이니 若專執前藥하면 豈能中其肯綮耶아”라고 總結하여 指出하였다. 劉純은 이러한 簡練한 幾句話를 써서 나아가 장차 眩暈證의 病因病機 및 治療原則을 基本적으로 概括하였다.

『玉機微義』는 또한 證治의 範式과 鑒別診斷을 특별히 중시하였다. 張子和를 集한 것 같으면 “論嗽分六氣無拘於寒”. 按에 이르기를 “此只述六氣爲病하니 故其中集司天勝復爲咳之略이오 但無濕乘肺式하나 方治則又有之式하니 蓋脫簡爾라”고 하고, 上述한 “濕乘肺式”, “方治之式”은 대개 곧 證治의 範式, 模式이 되고, 中風같은 다만 眞中, 類中을 論述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傷寒腹痛, 陰毒腹痛, 屬熱腹痛, 屬血腹痛, 因疝腹痛, 瀉痢腹痛, 積聚腹痛, 腸癰腹痛等을 들어 還例하였으니, 이러한 것은 이미 證治의 範式이 되고, 또한 鑒別診斷에 依據해서 이러한 것을 모두 臨床實際에 十分切用할 수 있다.

徐彥純, 劉純은 易水學派의 氣味歸經學說에 대하여 十分重視하였는데, 그들은 다만 單味藥의 藥理解說에 氣味歸經學說을 應用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方劑의 釋義까지도 廣泛

위하게 運用하여 거의 每方의 後에 모두 “某某經藥也”라는 按語가 있다. 『局方』人參白虎湯 下의 按에 이르기를 “此手太陰足陽明藥也”라 하고, 縮脾飲下의 按에 이르기를 “此手足太陰少陰足陽明經藥也”라 하는 等과 같은 것이 있는데, 이러한 것이 此書釋方의 一大特色이다.

『玉機微義』는 廣集博採하여 引用한 古醫籍이 數十部인데, 그 中에 적지 않은 것이 지금 이미 失傳되었는데, 『黃帝針經』宋·趙嗣眞『活人書釋疑』宋·李思訓『保命新書』宋·鄭端友『全嬰方論』元·朱丹溪『外科精要發揮』明·郭文才『瘡科心要』 및 『外科正理論』等과 같은 것으로 지금 다 亡佚되어 不存하다. 여기에 있는 『保命新書』『宋以前醫籍考』같은 것은 著錄이 없으며, 더욱이 그 인용한 『針經』은 매우 重要하다. 以上의 각 書는 현재 겨우 『玉機微義』에 의뢰해서 대략 그 鼎味를 안다. 이로 인하여 『玉機微義』는 다만 中醫理論과 臨證을 研究하는 좋은 文獻일 뿐만 아니라, 또한 中醫古籍을 整理, 校勘, 輯供하는 等에 珍貴한 資料를 提供하며, 대개 그 引用한 것은 다 明初以前的 版本이 된다.

徐彥純, 劉純은 모두 明初에 一代名醫가 되는데, 撰한 『玉機微義』는 中國學者에게 매우 큰 影響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日本後世方派의 發展에 대하여 또한 功이 적지 않다. 日本李朱醫方派 곧 後世方派의 大師는 曲直潮道三 (1507 - 1595) 및 그 高足인 義子 曲直瀨玄朔 (1549 - 1635)인데, 다 『玉機微義』를 받들어 圭臬을 삼고, 아울러 課本을 지어 弟子에게 講授하였다. 『玉機微義』는 대략 明嘉靖間에 日本에 傳人되었고, 曲直瀨道三이 일찍이 明嘉靖九年에 黃焯本을 校勘翻刻한 것에 의거하여 日本에 널리 流傳되었으며, 그 三傳弟子 中山三柳도 또한 『玉機微義』를 重刊하였는데, 더욱 精審하다.

『雜病治例』는 劉純晩年の 著作인데, 이는 他一生의 臨床經驗과 心得의 總結이 된다. 이 書는 言簡意賅하여 一綱領性的 雜病要訣이 되는데, 이 書는 원래 自家後人에게 傳授하려고 著作한 것으로 故로 “藏爲家寶요 且不可示人이라”고 囑하였다. 書中에 敘證七十四種이 모두 證으로써 綱을 삼고 法으로써 目을 들었고, 症으로써 示例하고, 例으로써 見方하였다. 風證같은 아래로 復氣, 捷嚏, 汗, 宣, 下, 雙解, 劫, 理氣, 理血, 補氣, 補血, 通關透肌骨, 導痰通經, 清熱, 灸, 針, 熏, 敷貼等 十八法을 나누고, 見方이 三十餘首이고, 每證의 下에 劉純이 首에 먼저 幾句話를 쓰고, 綱領性的 本證病機 및 治療原則을 概括하여 後學者에게 一目了然하여 精髓를 바로 取할 수 있게 하였다. ‘痰飲’같은 下에 이르기를 “痰之爲物은 隨氣升降하여 無處不到하니 亦有脾虛而痰飲作者에 有五飲이라.”하고, 또 ‘喘’證의 下에 이르기를 : “未發엔 以扶正氣爲主요 已發엔 以攻邪爲主하니 有外感邪盛이라 ”하고, 盜汗證에 이르기를 “血虛, 陰虛요 小兒不須治라”하였는데, 이러한 數語의 言은 實로 每證의 概論이 된다.

『雜病治例』는 首에 蕭謙序, 朱丹溪 「醫家十要」, 劉純「蘭室誓戒」, 「戒行吟」, 「調鼎吟」, 「醫家十要」가 있는데, 朱丹溪의 家訓이 되는 것으로, 後人을 教誨하고 醫德을 恪守하여 修身治家の 訓條가 된다. 이는 歷來醫籍에서 朱丹溪本人 및 그 親傳弟子 戴元禮, 趙以德, 王履等著作中에 包括되어 있는데, 따라서 露過를 未披한 珍貴한 資料이다. 이것의 記載는 우리에게 元朝醫家世故와 朱丹溪의 處世哲學에 대하여 理解하고 研究하는데 寶貴한 依據

를 提供한다. 『蘭室誓戒』은 劉純이 『醫家十要』를 본뜬 것으로 自擬하는 家訓이다. 『戒行吟』, 『調鼎吟』은 七律詩體形式으로 寫成한 醫家의 自戒座右銘이다.

『傷寒治例』의 撰年은 詳細하지 않은데, 그 體例를 보면 『雜病治例』와 더불어 서로 비슷하다. 『雜病治例·蘭室誓戒』를 高찰해보면 이르기를 “傷寒證候는 宜熟讀『傷寒論』, 『明理論』, 『百證歌』하라……. 是以不可執一하니 當看證例約之라”고 하였는데, 『雜病治例』에 應하여 傷寒一門이 있는 것을 說明하는데, 다만 現存하는 『雜病治例』에는 傷寒一門이 없다. 이로 인하여 이 兩書가 매우 相互 補充될 수 있는 一部著作인 것을 推測할 수 있다. 이에 의거하면 또한 應하여 同一時期의 作品이 된다. 本書는 단지 一卷이지만 敘證이 九十六種이고, 그 中에 傷寒이 八十八種이고, 溫病이 八種이다. 引用한 醫家가 四十餘人이고, 書寫體例는 基本적으로 『雜病治例』와 더불어 같고, 每證의 下에 먼저 綱要性概論을 敘하고, 次에 治則을 述하고, 治則의 下에 病狀病程과 辨證이 되고, 後에 立方이 된다. 全書는 綱領提要形式으로 寫成되었다.

淸初의 傷寒學家 汪琥는 『傷寒治例』에 매우 높은 評價를 내려 주었고, 여기에서는 『傷寒論辨證廣注·采輯古今諸家書目』中에 말하기를 “書止一卷이나 其辨傷寒自發熱始하여 至循衣摸床共八十七條(按: 實爲八十八條)와 末後又溫瘧等病八條라. 每條皆有治法하니 有如發熱症하면 其治則曰解表, 曰發汗, 曰解肌, 和營衛之類요 其例則曰隨病, 曰隨時, 曰變例, 曰禁例, 曰針例라 其法詳審精密하여 於仲景原論之外에 而能雜以後賢方治라 蕭易庵序云: 治傷寒者循此而行하면 如射而中的하고 獵而獲하여 可以起死回生하리니 其言信不誣矣라”하였는데, 大抵 劉純은 法式理例과 臨證實用을 중요시하여 근근히 『傷寒論』條文을 겨우 辨晰하는 정도가 아니니, 汪琥의 評가를 이 가운데에 肯定할 만하다.

劉純의 四部醫學著作을 종합적으로 보건데, 劉純의 一生에서 醫學研究 및 臨證의 基本思想源流와 發展道路에 從事하고 및 그 嚴謹한 實事求是의 科學態度를 볼 수 있다. 그 一生은 이미 『內經』, 『難經』의 經旨를 重視하고, 또한 朱丹溪等 金元醫家의 學術成就를 崇尚하였고, 同時에 盲目적으로 前賢의 醫論方藥을 搬用하지 않고 繼承하고 批判하였으며, 補充하고 發展시켰다. 능히 自己의 研究成果와 臨床心得體會에 근거하여 科學的見解를 提出하였고, 다른 許多한 見解는 확실히 獨到한 곳과 臨證實用價値가 있다. 蕭謙은 『傷寒治例』序中에서 劉純을 贊頌하여 “博極群書호대 尤精醫道라”하였고, 王崑은 『玉機微義』를 校勘할 時에 劉純에 대하여 높은 評價를 내렸는데, 여기에서 말하기를 “考據議論컨대 精密詳備하니 實醫道之寂粟布帛으로 不可無者라”하였는데, 劉純은 眞實로 이에 해당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다.

VI. 結 論

明初의 저명한 醫家인 劉純(1358~1418)의 生涯와 醫學思想에 대하여 高찰한 결과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劉純의 字는 宗厚이고 關中人이다. 여러 학문에 博學하되 醫道에 더욱 精微하였으며, 著書로는 『醫經小學』, 『玉機微義』, 『雜病治例』, 『傷寒治例』가 있다.

2. 『醫經小學』은 초학자를 가르치기 위하여 만든 것으로, 『內經』과 『難經』 및 金元諸家 醫學著作의 要旨를 모으고 자신의 견해를 첨부하고 歌訣 형식으로 書寫하여 記習하기 편리하게 하였다.

3. 『玉機微義』는 徐彥純이 中風, 痿證, 傷風 등 十七種의 病症에 대하여 기록한 『醫學折衷』에 咳嗽, 熱, 火 등 三十三種의 論說을 추가하여 明代以前的 醫家들의 學說을 綜合하고 自身の 意見을 추가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韓醫學 理論과 臨證을 研究하는 좋은 文獻일 뿐만 아니라, 또한 韓醫學 古籍을 整理·校勘하는 등에 珍貴한 資料를 提供하고 있는 것이다.

4. 『雜病治例』의 體制는 收錄된 七十四種의 證狀이 모두 證으로써 綱을 삼고 法으로써 目을 들었고, 症으로써 示例하고, 例으로써 見方한 독특한 형식이고, 특히 「蘭室誓戒」와 「戒行吟」과 「調鼎吟」은 七律詩體形式으로 寫成한 醫家의 自戒座右銘이라고 할 수 있다.

5. 『傷寒治例』는 『雜病治例』에서 說明되지 않은 傷寒에 대하여 論述한 것으로, 淸初의 汪琥는 法式理例와 임상활용을 중요시한 서적이라고 높이 評價하였다.

[參考文獻]

1. 姜典華主編, 劉純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2. 永瑛等撰, 四庫全書總目. 北京, 中華書局, 1995.
3. 李梴, 醫學入門, 서울, 大星文化社, 1984.
4. 何時希, 中國歷代醫家傳錄.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1.
5. 許浚, 東醫寶鑑. 서울, 驪江出版社. 1994.